

천개의 파랑

반가웠어요, 투데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길 바라요.

원작

천선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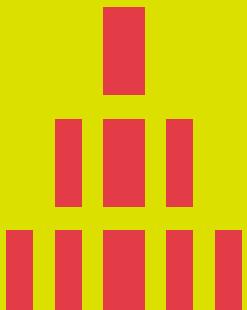
각색

김도영

연출

장한새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 이 공연은 2023년 (재)국립극단의 [창작공감: 연출]을 통해 개발된 작품으로
2024년 4월 4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재)국립극단 제작으로 초연되었습니다.

일시
2024년 4월 4일(목) ~ 4월 28일(일)

장소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주최·제작
(재)국립극단

2023 [창작공감: 연출] 작품개발단계 연혁

2023년 3-5월 공모 및 연출가 선정

5월 사전 모임

6월 오리엔테이션

6-10월 정기·수시 모임, 리서치 및 스터디

■ 강연

- 챗GPT, 마법과 마술 사이에서(오영진)
- 포스트휴먼과 SF(이동신)
- 천문학 데이터 기록과 저장(이명현)
- 인도와 인공지능: 군도의 존재론(이택광)

■ 워크숍

- 네팔, 집중하는 단순함(서윤미)
- 두뇌의 기록기술 및 로봇(정재승)

■ 리서치

- 아트코리아랩 <수퍼 테스트베드> 기술교육 수강
- 로보월드 전시회 답사

11-12월 창작 워크숍 진행 및 구성대본 작업

■ 장한새 연출팀 배우워크숍

- 비인간 연기 및 퍼펫 활용 연기 실습

■ 장한새 연출팀 기술워크숍

- 언리얼 엔진, 모션캡처, 메타휴먼 활용 실습
- 모션캡처 기반 공연 프로젝트 사례(이혜원)

12월 최종 발표회: 장한새 연출팀 <천 개의 파랑>

2024년 1월 의견수렴 및 대본 수정

2~3월 본 공연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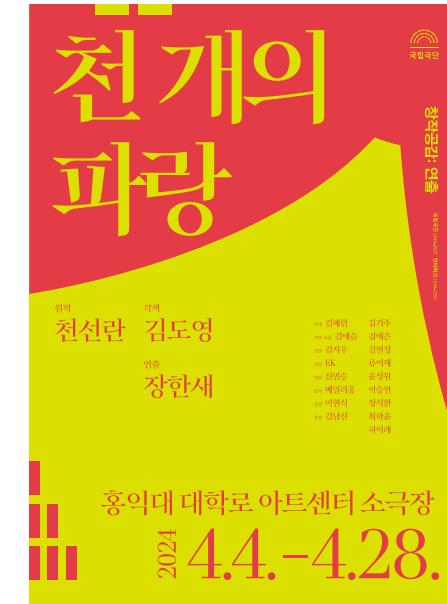
4월 본 공연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국립극단 천 개의 파랑

원작 천선란

각색 김도영

연출 장한새



02 운영위원의 글

16 작품 이해돕기1

04 원작자의 글

19 작품 이해돕기2

05 각색작가의 글

22 로봇 디자인 스케치

06 연출의 글

23 영상 스케치

08 시놉시스

24 연습 스케치

10 출연진

26 만드는 사람들

14 스태프 프로필

27 (재)국립극단



전강희

[창작공감:연출]
운영위원회 드라마 투르기

콜리가 떨어지는 3초 동안, 그리고 직전과 직후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출가들의 아이디어 공모로 시작하는 [창작공감: 연출]의 2023년도 주제는 '과학기술과 예술'이었다. 블랙박스라는 물리적 극장 공간 안에서 연극이 기술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탐색해 온 연출가와 작년 한 해 동안 작품개발과정을 거치고 올해 공연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장한새 연출가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진 메타버스의 원리를 극장에 적용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양쪽 세계 모두에 존재하며 사람들을 관찰하는 로봇 인물을 구현하고자 했다.

작품개발과정을 거치며, 연출가의 상상력은 구체적인 개념을 내포한 단단한 연극 언어로 만들어져 나갔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동시에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는 언리얼 엔진, 모션 캡쳐, 메타 휴먼 등을 활용하여 스크린 속 공간 또한 극장 공간으로 확장해 보는 시도로 이어졌다. 로봇은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도 다른 인물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삶을 저장하는 매개자와 같은 인물로 설정하고자 했다. 기술이 발전한 미래가 초래하는 디스토피아적인 측면보다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가 따뜻하고 다정하게 얹히면서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런 결론에 이르며 선택하게 된 이야기가 천선란 작가의 <천 개의 파랑>이다. 연출가가 생각하는 미래 기술 사회의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관계성이 이 소설 속에 담겨있었다.

"나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 소설의 두 번째 문장이자, 연극의 첫 대사이다. '콜리'라는 이름의 기수 로봇은 투데이라는 말의 등에서 바닥으로 '천천히', '조금씩 하늘에서 멀어지면서', '3초 동안' 떨어지고 있다. 소설의 첫 문장 "이건 이 이야기의 결말이자 나의 최후이기도 하다."가 연극의 전체 구조를 관통한다. 연극은 떨어지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다시 떨어지는 장면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2시간이 넘는 이 연극이 실제로는 말에서 떨어지고 있는 콜리의 3초 동안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콜리의 3초는 메모리 박스에 기록된 장면들을 보여준다. 인간다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죽기 전에 스쳐 지나가는 주마등 같은 장면들이다. 그의 메모리 박스에서 불쑥불쑥 튀어 오르는 공간들은 경마장의 선로, 말을 돌보는 마방, 연재가 아르바이트하던 편의점, 보경의 식당, 은혜의 훨체어 옆이기도 하다. 극의 흐름은 비선형적인 시간을 반영하듯 빨라졌다, 느려졌다, 찰나의 포착된 동작 보여주기를 반복한다. 콜리가 메모리칩에 저장된 것을 꺼내어 나열해 보는 시간의 조각들이다. 클로즈업된 화면처럼 설명하게 드러난 순간, 보이지 않는 먼 과거를 애써 기억해 내는 듯 흐릿해진 순간들이 경기장을 도는 것 같은 방향과 속도로 무대를 채운다. 콜리가 느꼈던 투데이의 빨라지거나 상기되었던 호흡의 속도 역시 배우들의 몸짓과 숨소리를 통해서 객석까지 전달되는 무대다.

"살아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에요. 살아 있다는 건 호흡을 한다는 건데 호흡은 진동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 진동이 큰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에요." 콜리는 떨어지는 3초 동안 저장된 기억 속에서 이 순간들을 꺼내 보여주기 위해 관객들을 2시간 넘게 불들고 있다. 비인간이 인간에게, 그리고 또 다른 비인간에게 시도하는 소통 방식은 언어를 넘어서선다. 호흡을 나누는 것, 즉 타인에게 공감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이다. 장한새 연출가는 기술이 콜리처럼 존재함으로써 이런 소통을 가능케 한다고 말한다. 동물과의 소통도 가까이 다가가기를 통해 가능해진다고 말한다. 그는 연극에서 투데이를 빛으로 존재하도록 했다. '말'이라는 형상 너머 살아 숨 쉬는 존재로서 투데이가 관객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선택이다.

장한새 연출가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과 끝난 후, 다시 말해, 콜리의 3초가 시작되기 직전과 직후, 무대에 조명을 밝혀둔다. 관객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감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콜리의 3초가 끝났을 때, 현실로 돌아와서, 기술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지를 성찰해 볼 수 있도록 관객의 시간을 마련했다.



천선란

안녕하세요, 소설가 천선란입니다.
활자를 벗어난 <천 개의 파랑>은 또 어떤 색을 하게 될지 무척 기대되고 설레는
요즘입니다. 연극 공연장을 마방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무대에 배우가 오르기
전까지, 연극을 기다리는 창 하나 없는 조그만 공간에 갇혀 누군가를 하염없이,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줄 배우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천 개의 파랑> 연극
자체가 소설의 모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레지 않나요?
극을 기다리며, 마치 연재를 기다리는 콜리처럼 갇혀 있던 우리에게 펼쳐질 푸른 하늘이요.
어떤 연재와 은혜를, 보경이와 투데이를, 그리고 콜리를 만나게 될지. 그리고 그 첫 만남이
얼마나 익숙하고 낯설지, 듣고 느끼는 언어는 또 어떻게 다르게 와닿을지! 이렇게
연극으로 <천 개의 파랑>을 만나볼 수 있게 되어 다시 한번 영광이고, 극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작은 마방에서
연극을 기다리실 관객분들, 연극이 끝날 때쯤 이 작은 공연장에서 모두가 각자의 파랑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영

각색의 글을 쓰기 전, 오늘 하루를 잠시 돌아봅니다.
이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 속에서 움직였는지도 떠올려 봅니다.
대체로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 늘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 하루의 일과엔
예외가 없습니다. 어쩌면 나의 평온함은 기계적인 삶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든 불쑥 찾아오는 예외들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서둘러 처리하고, 때로 외면하고,
떠넘기고, 억누르며. 쓸모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기계화된 몸을 스스로 원했던지도요.
원작을 최대한 살려 작업을 하는 동안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제게
남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느리게 걷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동작 그만.”의 예외가 찾아오는 날까지는요.

공연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장한새

완전한 세계 속 불완전한 존재들의 이야기

2017년 8월, 일본 도쿄 인근 지바현 이스미시의 한 절에서 로봇 개 '아이보'를 위한 다섯 번째 학동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여느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엄숙한 분위기에 진행되었으며, 대화형 로봇 '파루로'가 사회를 맡았고, 아직 작동하는 동료 아이보가 불경을 제창했습니다. 로봇 '파루로'는 추도사에서 "우리는 너희들의 모습과 웃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회상했고, 주인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아이보'의 마지막 시간을 추모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기계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데 왜 그들은 기계에 마음을 주었을까요. 그 당시 일본은 사람들이 점차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서로 소원해지는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로봇의 멈춤을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애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주변에 애정을 주고받을 대상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세계는 어떤가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로봇에게 인간의 감정을 거의 완벽히 모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온갖 반려로봇이 세상에 등장했고,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은 이제 로봇에게 맡기라고 광고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놀라는 것도 스스로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급속도로 바뀌어갑니다. 그 속도에 도취되어 갑니다. 만끽하고, 환호하고, 추앙합니다. 상상이 금방 현실이 되는 세계. 모든 것이 완벽해져만 가는 세계에서 모순적이게도 너무도 불완전한 우리를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쉽게 연결되는 세계에서 너무도 고독하고 외로운 우리를 발견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 내는 완벽한 세계는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에게 너무도 날카롭고 차가운 세계인 듯합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도시의 밤을 못 이긴 어느 날, 소설 [천 개의 파랑]을 만났습니다. 이야기 속 연재가 기수 로봇 콜리를 처음 마주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을 받은 것처럼 저 역시 이 소설에 강렬한 끌림을 받았습니다. 종의 경계를 넘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넘어, 위계의 경계를 넘어, 그 무엇도 배제하지 않은 채 이뤄내는 이들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연대에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콜리를 통해 자신들의 결핍을 극복하고 다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공존과 연대는 따뜻함을 전해줌과 동시에 지금, 여기,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기술과의 불가피한 공존'의 차가움을 감각하게 했습니다. 공존을 위해 스스로 멈춤을 선택한 콜리가 유독 인간답고 아름다워 보이는 건, 어쩌면 우리는 인간성을 상실할 수 밖에 없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까요. 천천히 달리는 연습은 우리 세계의 차가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저는 이 연극을 통해 처음으로 '공존'을 시도해 봅니다.

우리는 로봇 콜리에게 연극의 모든 것을 넘겨줍니다.

콜리는 연극을 위해 마지막 3초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리고 부서지고, 깨데기를 잃습니다. 연극은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깨데기를 잃은 존재는 그 깨데기를 비로소 온전히 마주합니다.

무언가를 잃은 그 존재의 고독이 비로소 보입니다.

콜리의 연극은 어떤 존재가 또 다른 어떤 존재에게 보내는 애도와 현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계와 기술에게 우리 연극의 전권을 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쉬운 것들이, 어쩌면 정답이 있는 것들이 모두 의심이 되었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기계와 기술의 지배를 받는 경험은 익숙하면서도 어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콜리는 여전히 기계였고, 기계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수용해 주고 깊은 고민을 함께 해준 동료들이 있었기에 지난한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고, 짧은 시간이나마 천천히 달리는 연습을 기꺼이 함께 해준 나의 동료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보냅니다. 또한, 이 글을 빌어 [천 개의 파랑]을 무대에 올릴 수 있게 기꺼이 허락해 준 천선란 작가님과 저의 고민과 창작 과정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준 국립극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끌으로, 우리의 사랑스런 로봇 콜리의 짧고도 긴 마지막 3초를 빛내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놉시스

경주마들이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휴머노이드 기수가 도입된 시대. 휴머노이드 기수인 ‘콜리’는 한때 가장 빠른 경주마인 ‘투데이’의 파트너로서 ‘투데이’의 진동을 통해 그의 기쁨을 인지하고 그가 달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는 ‘투데이’가 온전하게 달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콜리’는 ‘투데이’를 살리기 위해 낙마하고, 하반신이 절저히 부서진다. 폐기될 앞두고 있던 어느날, ‘콜리’를 발견한 ‘연재’는 전재산을 털어 ‘콜리’를 사고 수리한다. 한편, ‘연재’의 언니 ‘은혜’는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 경마장의 마방을 어느 때처럼 훨체어로 출입하다 ‘투데이’가 안락사 예정임을 알게 되고 이를 막고자 ‘연재’, ‘콜리’와 함께 계획을 세운다. 그 결과, ‘투데이’에게 마지막으로 주로를 달릴 기회가 오고 천천히 달리는 연습을 해온 ‘투데이’의 마지막 경주가 시작된다.

Synopsis

The story is set in the future where humanoid jockeys are used to help racehorses speed up. A humanoid jockey named ‘Coli’ serves as the partner of ‘Today’, once hailed as the fastest racehorse in the world. Coli senses Today’s joy through his vibrations, knowing that he is happiest when he is running. However, when Today is no longer able to run at full speed, Coli sacrifices himself by falling off the horse, resulting in severe dismemberment of the lower half of his body. One day, a girl named Yeon-jae finds Coli facing disposal and spends her entire fortune to buy and repair the robot. Meanwhile, Yeon-jae’s sister Eun-hye, in a wheelchair, goes to the racetrack stable, her only refuge, and discovers that Today is about to be euthanized. Together with Coli, the two sisters come up with a plan to thwart this fate. As a result, Today is given one last chance to run on the main track. Having practiced running at a slower pace, Today prepares for his final race.



김기주 Kim Ki Joo | **지수 외**

연극

<안경부부의 이스탄불 여행기> <도넛> <플레이백>
<검찰관> <cHaRm> <울모스트 메인> <미마지!>
<해프닝> <소년, 천국에 가다> <동물공화국> <구색몽> 외



류이재 Ryu I Jae | **은혜**

연극

<작은 아씨들> <바닷마을 다이어리>
<연극 안 하기 – 영화관 가기> <환동회> <파포스>
<도덕의 계보학> <믿음의 기원 2: 후쿠시마의 바람>
<연출의 판 – 프로토콜> <당신이 알지 못하나이다> 외



김예은 Kim Ye Eun | **콜리**

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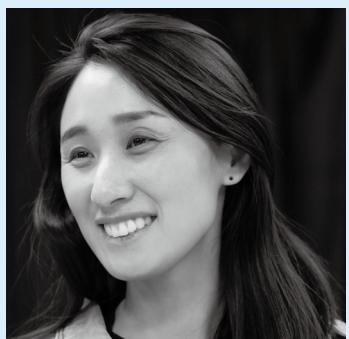
<문다 배다 나누다: 과정공유회> <스고파라갈> <문순>
<스카팽> <이 세상 말고>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코인 세탁소> <자살광대> <에스메의 여름>
<나는 왜 아버지를 잡아먹었나> <가까스로 우리> 외



윤성원 Yun Seong Won | **민주 외**

연극

<템플> <이 불안한 집> <산책하는 침략자> <벚꽃 동산>
<연꽃정원> <세인트 조앤> <금조 이야기> <1인용 식탁>
<어딘가에 어떤 사람> <헤카베> 외



김현정 Kim Hyun Jung | **보경**

연극

<그레텔과 핸젤> <나는 쏘다녔지> <재주는 곰이 부리고>
<Theater keepers> <그 밖의 사람들> <범죄소년들>
<검은 툴립> <탐나는 가> <개> <환장할 진심>
<거울 멕베스> <하늘을 걷는 선인장> 외



이승현 Lee Seung Hun | **소방관, 점주 외**

연극

<아들에게(부제: 미옥 앤리스 혐)>
<그 순간, 시간이 멈춘다> <붉은 낙엽> <우리별>
<흔마라비해> <레라미프로젝트> <한여름밤의 꿈>
<세자매> <돌연히 멈춤> <리어왕> <바다 한가운데> 외

뮤지컬

<빨래> 외



장석환 Jang Seok Hwan | 서진, 주원 외

연극
<아들에게 (부제: 미옥 앤리스 혼)> <어부의 핵>
<벚꽃동산> <파우스트> <세인트 조앤> <인형(들)의 집>
<영자씨의 시발택시> <붉은 낙엽> <그 개> <나의 엘레닌>
<나는 형제다> 외

수상 2021 42회 서울연극제 신인연기상



최하윤 Choi Ha Yoon | 연재

연극 <작은 아씨들> <쿠쉬나메> <바니타스> <회란기>
<서툰 사람들> <솔리데리티> <공간 기억 사람 –극장편>
<비> <낙타상자> 외

음악극 <붉은머리 안> 외



허이레 Heo Jireh | 복희 외

연극 <의붓자식-백 년 만의 초대>
<울지 마, 녹슬어> <노끼리다-젠탠구>
<챠크, 챕챰 챕챰 #2 버려진 것들에 대하여>
<이태리블루스> <앉은뱅이> <자매> <돌아온 박첨지>
<개구리> <사천의 착한 영혼> 외



로봇 콜리 Coli | 콜리

데뷔



각색 김도영 Kim Do Young	극작 각색	<어부의 책> <윙키> <마운트> <햄버거 먹다가 생각날 이야기> <왕서개 이야기> <수정의 밤> <아루과 루시> 외 <붉은 낙엽> 외
---------------------------	----------	---

연출 장한세 Jang Han Sae	연출	<어부의 책> <윙키> <마운트>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광 소리 한 번 없이 흐느낌으로> <햄버거 먹다가 생각날 이야기> <노부인 야류> <#장례식> <호모 로보타쿠스> 외
---------------------------	----	--

드라마투르기 전강희 Jeon Kang Hee	창작공감:연출 21-23년도 운영위원 기획	아르코 40주년 아카이브 프로젝트 '밤의 플랫폼'
드라마투르기	<아들에게(부제: 미옥 앤리스 혐)> <키리에> <지상의 여자들>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외	
공동연출	<밤이 없는 여름> <어둠을 만나러 가는 길> <계속 이어지는 날> <방랑의 기술> <오로라 色의 비밀> 외	

무대 김혜림 Kim Hye Rim	무대	<엑스트라 연대기> <누구와 무엇> <너의 원손이 나의 원손과 그의 원손을 잡을 때> <발목> <정희정> <밤이 없는 여름> <어둠을 만나러 가는 길> <2020▲△> <바다쓰기> <바바리맨> <BAHN> 외
--------------------------	----	---

로봇·소품 김예슬 Kim Yesle	소품	<어부의 책> <룰렛> <파우스트> <인비저블> <하임> <박에스더> <신아위> <우리, 숨> 외
무대	무대	<쉬는 시간> <녹원의 보음> 외

조명 김지우 Kim Ji Woo	조명	<메시앙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어부의 책> <무출산무령화사회> <인생은 메들리> <윙키>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광 소리 한 번 없이 흐느낌으로> 외
시노그래피	시노그래피	<지구에 감자가 이따> <페이스타임> <국가공인안마사> <가족극 농사왕> <햄버거 먹다가 생각날 이야기> 외

의상 EK	의상	<제로쉴드제로> <영지> <댄스네이션> <트랙터> <기후비상사태:리허설> <이것은 어쩌면 실패담, 원래제목은 인투디 언노운(미지의 세계로, 엘사 아님)> <콜타임> <더 나은 숲> <닭쿠우스> <붉은 낙엽> <왕서개 이야기> <조치원 해문이> 외
----------	----	--

영상 신민승 Shin Min Seung	영상	<메타 헨즈> <가족극: 농사왕> <어부의 책> <함께 살아가기 프로젝트: ㅅㅅㅅㅅㅅ> <Let's Go To My Star 시즌2> <경쟁년> <윙키> <미카미 시온> <햄버거 먹다가 생각날 이야기> <뉴스페이스: 연극> <향연 2099> 외
-----------------------------	----	---

음악 페일리홍 Bailey Hong	음악/사운드	<카리에> <아들에게(부제: 미옥 앤리스 혐)> <금성여인숙> <고목> <어둠을 만나러 가는 길> <밤이 없는 여름> <ZZIZIL VALLEY> <계속 이어지는 날> <테이프에 연필 끌기> <극장을 경유하는 목소리들> <운하계 제국에서 랑데부> 외
---------------------------	--------	--

음향 이현석 Lee Hyun Seok	음향/사운드	<제 5의 파편> <할머니의 언어사전> <글로리> <그리고 도둑들> <신파의 세기> <낮은 칼바람> <물고기로 죽기> <생활의 비용> <어부의 책> <통속 소설이 머 어서?!> <유영> <로미오와 줄리엣 And More> 외
----------------------------	--------	--

분장 김남선 Kim Nam Seon	분장	<렛미플라이> <쇼맨-어느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 <곤 투모로우> <서편제> <아일랜더> <동네> <차미> <운더비트> <바닷마을 다이어리> <나무위의 군대>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외
---------------------------	----	--

조연출 정예진 Jung Ye Jin	연출	공동창작극 <이-ㅅ-ㅆ다>, 낭독공연 <코뿔소>, 뮤지컬 쇼케이스 <안녕 파도> 외
조연출	연출	<어부의 책> <문다, 배다, 나누다: 과정공유회> <꼭꼭 접어, 콩콩콩> 외
조연출보	연출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광 소리 한 번 없이 흐느낌으로> <마운트> 외

<천 개의 파랑>이 되기까지 제작 과정 기록

[기술·배우 워크숍 기록]

연극 <천 개의 파랑>은 [창작공감: 연출] '과학기술X예술'이라는 주제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에 다양한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극장'이라는 공간의 확장이 시도되었다. 기술과 연극이 만나는 순간을 위해 배우와 스태프들은 워크숍을 진행했다. 11월에는 기술 워크숍과 배우 워크숍을 나눠 각각의 개별 트랙으로 진행, 12월에는 기술·배우 연합 워크숍 및 발표회를 진행하였으며, 그 기록을 정리해보았다.



TRACK1: 기술 워크숍

모션 캡처, 3D 그래픽 툴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극장이라는 공간을 확장하는 방법을 논의하고자 연습실 한쪽 벽에 커다란 LED 패널을 설치하고 기술 스태프와 전문가가 모였다. 연습실 공간을 화면 안에 똑같이 재현해 놓고 모션 캡쳐를 진행하여 마치 공간 안과 밖이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듯한 장면이 구현되었다. 참여자들은 각종 경계를 무너뜨리고 가상공간과 실제 공간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연극적 형식을 다양하게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졌다. 3D 그래픽 툴인 '언리얼 엔진'으로 설계한 가상 공간, 실시간 AI 모션 캡처로 생성한 가상 인물이 워크숍에 활용되었다.



TRACK2: 배우 워크숍

배우들은 '기술(기계)을 사유하는 감각', '비인간(을)과 연기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여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의 중심 키워드는 '감각', '몸', '비인간'이었다. 워크숍은 배우들이 일상에서 감각하고 있는 기술, 로봇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몸의 움직임과 질감을 감각하는 '라반 테크닉', 인형과 함께 장면 만들기 등 가상 공간, 비인간과의 교감을 위한 경험으로 이어졌다.



TRACK1,2: 기술·배우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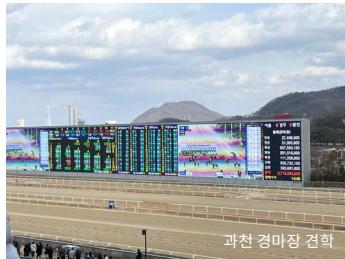
12월에는 기술과 배우 워크숍이 연합으로 진행되었다. 배우들이 직접 가상 세계와 가상 인물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 참여자들은 3D 모델링으로 만들어진 메타 휴먼을 통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로 연기하고, 움직여보았다. 연극이 과학 기술을 만났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배우들은 앞선 워크숍에서의 경험과 <천 개의 파랑>의 연결 지점을 탐색했다. 그리고 워크숍의 마지막 날, 원작을 발췌하여 각자가 만든 장면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극장 속에 새롭게 펼쳐질 <천 개의 파랑> 세계와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

[연습·견학 기록]

연습실에서 다시 만난 배우와 스태프들은 말, 로봇 등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존재들을 만나기 위해 제작 일정동안 함께 견학을 다녀왔다.

2024. 02. 07. 로봇 관련 전시 관람

로봇을 다루는 작품들을 관람하며 익숙하면서도 낯선 로봇의 움직임을 감각하고, 로봇이 빛과 소리를 만났을 때 보이는 다양한 형태들을 탐색할 수 있었다.



2024. 03. 02. 과천 경마장 견학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 배우와 스태프들은 함께 과천 경마장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경마 문화와 룰, 베팅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경마장의 분위기를 느껴보았다. 이를 통해 경마장에서 연재, 은혜, 콜리가 느꼈을 마음을 헤아려볼 수 있었다. 또한 말의 속도와 몸집, 빠르게 달리기 위해 말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관찰하고 이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024. 03. 06. 이천 말 전문 동물병원 견학

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하고 보살피는 말 전문 동물 병원에 견학을 다녀왔다. 경마장보다 훨씬 가까이서 말과 교감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팀원들을 반갑게 맞이해주신 천용우 수의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말, 그리고 수의사의 삶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가까이서 만난 말은 생각보다 더 크고 따뜻하며, 털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존재였다. 말에게 안부를 전네고, 쓰다듬고, 온기를 느끼며, 배우들은 '투데이'를 사랑하는 작 중 인물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작품에 담긴 세계를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보는 일. 이러한 경험들은 극장이라는 공간 속에 우리가 직접 감각한 세계를 펼쳐놓기 위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무대 위에 보여질 존재들과 공간들은 일상적이면서도 낯선 것들이기 때문에, 배우들은 견학을 통해 알게 된 정보와 감각들을 적극 활용하여 연습을 이어나갔다. 배우들은 말, 로봇, 수의사 등 다양한 존재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물 연기에 입체감을 더할 수 있었다.



작 중 인물들의 고뇌와 결핍과 애정과 연대, 그 모든 '파랑'을 위해 달렸던 시간을 지나, 이제 <천 개의 파랑>은 관객들과 '천천히 달리는 연습'을 함께 하려 한다.

작품 이해돌기 2

Q 메모리에 저장. <천 개의 파랑>

메모리 박스 열기()

C:\Coli\system44>“C:\Memories\People”

// 저장 내용 열람하기.

//저장 분류 기준:

지도 상 위치(Location) -> “연재의 집” / “투데이의 집” / “정보없음”

천 개의 단어,

그보다 더 커다란 몇 사람의 이름.

콜리는 이들을 어떻게 ‘저장’했을까?

연재의 집

연재 {

[청소년.]:

몸은 큰 인간들과 다를 바 없으나
호흡과 떨림을 보면, 작은 인간이다!

[천만 개의 파랑.]:

머릿속에 단어들이 많아 보인다. 천만 개 정도?
나보다 훨씬 다채로운 파랑이 가득.
하지만 몸 밖으로 나오진 않는다. 썩진 않을까?

}

은혜 {

[로봇 인간.]:

신기한 기구를 타고 조용히 움직이는 인간.
그 모습이 웬지 나와 닮았다.

[사랑의 눈빛.]:

투데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상당히 복합적인 감정으로 판단된다.
은혜에게 물어보자, 은혜는 ‘사랑’이라고 대답했다.

}

보경 {

[알 수 없는 사람.]:

다양하게 움직이는 안면 근육, 형형색색 바뀌는 낯빛.
로봇을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어려운 사람의 마음.

[경주마.]:

기억을 잔뜩 지니고도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움을 이기는 방법을 아는 유일한 사람.

투데이의 집

```
1  투데이 {  
2      [영원 그리고 빛.];  
3      나는 보았다. 무엇을? 영원을.  
4      그것은 태양이 비추는 바다.  
5      우연히 발견한 프랑스 시인의 시. 보자마다 투데이가 생각났다.  
6  }  
7  민주 {  
8      [투데이를 처음 소개해 준 사람.];  
9      나는 민주와 투데이를 만나 첫 '쓸모'를 얻었다.  
10 }  
11 [마방 관리자.];  
12 '삶의 무게'는 전부 민주의 어깨와 눈빛 안에 있나 보다.  
13 차갑고 무심한 말투에 깊은 고민과 고단함이 느껴진다.  
14 그럼에도 나에게 잘살아 보라고 말해준 사람.  
15 }  
16 [복희.];  
17 [따뜻한 손의 온도.];  
18 투데이가 좋아한다. 투데이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  
19 }  
20 [수의사 선생님.];  
21 선생님, 진화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의 결과물이래요.  
22 투데이와 저는, 좋은 진화인가요?  
23 }  
24 [마주.];  
25 [회색 표정.];  
26 어두운 회색의 표정을 가진 인간, 저건 무슨 감정이지?  
27 }  
28 [투데이의 소유자.];  
29 나의 소유자 연재가 나를 아껴주는 만큼,  
30 이 사람도 투데이를 아껴주면 좋겠는데.  
3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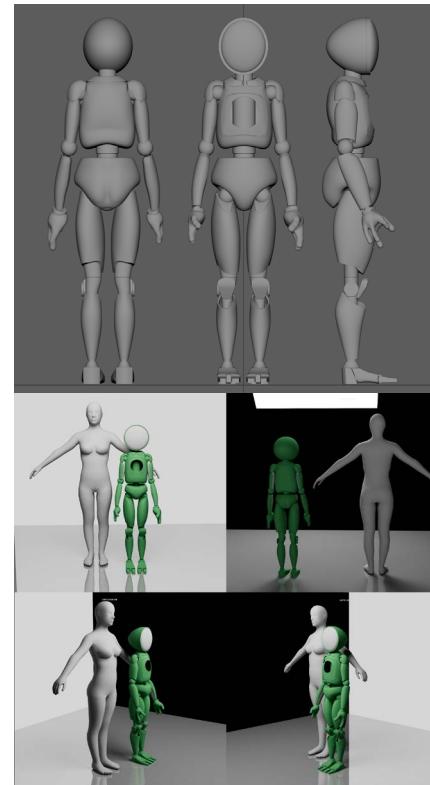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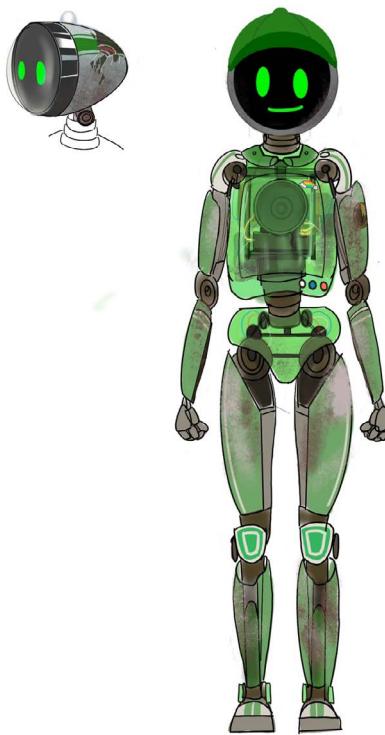
정보 없음

```
1  소방관 {  
2      [보경의 영웅.];  
3      치킨을 자주 사온다는 기록.  
4      치킨을 좋아한다. 아니면, 보경이 좋아해서일까?  
5  }  
6  [이름값 없음.];  
7      보경은 '여보', 연재와 은혜는 '아빠'.  
8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9      모두 중요한 이름인 듯하여, 대표 이름값을 설정하지 못했다.  
10 }  
11 [지수.];  
12 [A급.];  
13 학생들 사이에는 '급'이라는게 있다고 한다.  
14 연재 말에 의하면 지수는 A급.  
15 A, B, C.. 앞선 알파벳일수록 좋은 것이라고 했다.  
16 로봇들 사이에도 급이 있다면, 나는 몇 급일까?  
17 }  
18 [같은 팀.];  
19 투데이와 나 = 연재와 지수?  
20 지수와 100명의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면,  
21 연재는 지수를 몇 번째로 구할까.  
22 }  
23 [서진.];  
24 [기억의 편집자.];  
25 다른 기구를 사용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  
26 기억과 기록은 조금 다른 것 같다.  
27 나의 기억과 기록은 얼마만큼 다른 속도로 달리고 있을까.  
28 }  
29 [주원.];  
30 [다이어리 속 파랑.];  
31 은혜의 다이어리에 가득 차 있는 이름.  
32 은혜의 기억 속에, 주원은 어떻게 저장되어 있을까?  
33 }
```

//저장 내용 열림 끝.

메모리박스 닫기.

저마다 '콜리'가 되어 인물 설명을 작성해주신 배우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콜리는 <천개의 파랑>에 나온대로 브로콜리 같은 초록빛 몸통을 가진 145cm 크기의 기수 로봇입니다.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과연 근 미래의 기수 로봇은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해보았습니다. 고민 끝에 기능적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공기저항이 낮은 스트림 라인 형태의 곡선으로 이어진 얇고 부드러운 외관의 어린 아이 모습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콜리는 1000개의 한정된 단어를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감각과 감정을 배워나갑니다. 이러한 특성은 LED 패널 속 초록 눈빛과 음향디자이너님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된 콜리 내부 스피커 등을 통해 표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처음 시도되는 로봇 배우를 디자인, 제작해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빠지고 더해지는 요소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양한 디자인을 제작하며 마치 콜리가 다시 달릴 수 있게 만든 연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콜리에게 집중하고 만들어나간 시간 끝에 지금의 콜리가 탄생했습니다.

작품 개발단계 초반에는 자이로식 모션 캡처¹⁾, 스마트폰을 활용한 AI 모션 캡처²⁾ 등 게임엔진과 연동하여 가상과 실재의 공간을 연결하는 감각을 탐구하였습니다. 리서치 과정에서 모션캡처의 다층적 표현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기술적 불안정성과 해결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등 장시간의 공연에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영상 디자인의 방향성을 ‘공간의 확장’이라는 목표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장한새 연출과 ‘콜리의 메모리 박스’라는 키워드를 공유하며 디자인 컨셉을 구체화했습니다. 따라서 영상은 무대의 공간적 확장이자 콜리의 메모리 공간으로 기능하며, ‘콜리’라는 한 존재의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1) 카메라 없이 슈트에 부착된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착용자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모션 캡처 방식.

2) 스마트폰 카메라로 포착한 움직임을 인공지능을 통해 추적하는 모션 캡처 방식.

연습 스케치



출연진 김기주 김예은 김현정 류이재 윤성원 이승현 장석환 최하윤 허이레

스태프

- 원작 천선란 음향장비임차 TKM
- 각색 김도영 음향팀 김학준 조현정
- 연출 장한새 영상장비임차 (주)가제트네트웍스
- 드라마투르기 전강희 홍보·마케팅 총괄 박보영
- 무대 김해림 홍보 이정현
- 로봇·소품 김예슬 마케팅 이지윤
- 조명 김지우 온라인마케팅 조영채 장인영
- 의상 EK 후원 이현아
- 영상 신민승 티켓 임윤희
- 음악 베일리홍 매표안내원 강민주 김인혜 문예은 이현우 홍유연
- 음향·로봇사운드 이현석 홍보사진 만나 사진작업실_대표 김신중
- 분장 김남선 연습·공연사진 박태양
- 조연출 정예진 티저영상 스튜디오에이엠_대표 최강희
- 움직임자문 윤성원 홍보영상 스튜디오 암사자_대표 홍서연
- 무대기술총괄 정광호 하이라이트영상 테일즈온 스튜디오_대표 김유민
- 무대감독 나혜민 메인디자인 인볼드_대표 박기현
- 무대제작감독 경은주 응용디자인 위드텍스트(WT)_대표 이지선
- 조명감독·오퍼레이터 류선영 옥외광고 프린팅랩_대표 김수하
- 음향감독·오퍼레이터 음창인 홍보를 인쇄 인터임_대표 김종민
- 의상감독·진행 신은혜 프로그램북 디자인 스튜디오 다솔_대표 이다솔
- 무대진행 장수지 프로그램북 인쇄 미림아트_대표 신동복
- 의상진행 방수현 기록영상제작 연두픽쳐스_대표 조윤수
- 분장진행 홍주미 김수현 영화 사용 출처 <이토록 정다운 삶> 각본·감독 유진목
- 영상오퍼레이터 박상준 하우스매니저 김나래
- 로봇오퍼레이터 배준희 하우스안내원 김지수 고개령 김연정 한세린 노정균 신정훈
- 무대제작 쇼먼트_대표 김나리 양선형 이선우 이성준 이세희 김지윤 송광호
- 세트팀 김상덕 고현종 김진성 박기덕 박진서 정우인 홍조은
- 박정흠 장재우 황준훈 조영래
- 로봇제작 기태인 [창작공감:연출] 운영위원 전강희
- 로봇제작 협력 주호석 작품개발총괄 정용성
- 로봇프로그래밍 최가람 구종희 작품개발 프로듀서 정준원
- 소품제작 예-술!스튜디오_대표 김예슬 기획·제작 총괄 이시영
- 소품팀 노은빈 프로듀서 박소영
- 로봇 3D 애니메이션·소품 보 송다현 제작진행 오성경
- 의상제작 EKCOSTUME_대표 이은경 제작 (재)국립극단
- 의상 보 권주하 그리고, 송안정님 및 국립극단 후원이 함께 합니다.
- 조명장비임차 글린트온_대표 강규선
- 조명프로그램 김현
- 조명팀 차영원 김남수 김기훈 정태진 엄지혜
- 김세희 신의정 이상민 이현직

(재)국립극단 이사회

- (공석) 이사장
- (공석)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 길혜연 이사 연극배우
-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 심재찬 이사 연출가
-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신은향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박인건 이사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단장 겸 예술감독**사무국장****경영관리팀**

- 신민희 팀장
- 현승은 정병옥 박지민 박예원 이민희
- 송한유 김민주 최신화 이다미

공연기획팀

- 이시영 팀장
- 김나래 김윤형 김정연 김수현
- 박성연 박소영 강민정 김주빈

홍보마케팅팀

- 박보영 팀장
- 이현아 김보배 이송이 이정현 임수빈 임윤희
- 조영채 박선영 노소연 정진영 손주형 이지윤

무대기술팀

- 정광호 팀장
- 김용주 음창인 홍영진 박지수 류선영 이병석 나혜민
- 박정현 김정빈 김태연 경은주 이승수 김지산 장도희
- 윤성희

작품개발팀

- 정용성 팀장
- 박지혜 이슬예 정준원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 김성제 소장
- 김미선 손준형 최하정

2024 시즌단원

- 강민지 강현우 구도균 안창현 유재연 윤성원
- 이경민 이다혜 이상은 이승현 이후정 정다연
- 조승연 최하윤 허이레 홍선우

2024년 국립극단과 시즌단원이 함께합니다.



강민지

<활화산>
[창작공감: 작가]
<모든>



강현우

<활화산>
<간과 강>



구도균

<활화산>
<간과 강>

안창현

<스카팽>
<햄릿>



유재연

<활화산>

윤성원

[창작공감: 연출]
<천 개의 파랑>

이경민

<활화산>

이다혜

<스카팽>

이상은

<활화산>

이승현

[창작공감: 연출]
<천 개의 파랑>
[창작공감: 작가]
<모든>



이후정

<스카팽>

정다연

<스카팽>

조승연

<활화산>

최하윤

[창작공감: 연출]
<천 개의 파랑>

허이레

[창작공감: 연출]
<천 개의 파랑>

홍선우

<활화산>

[창작공감: 작가]

<은의 혀>

[창작공감: 작가]

<은의 혀>

<사일런트 스카이>

<전기 없는 마을>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커튼콜
촬영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세요.



홈페이지
사전 안내 시행



환경을 위해
티켓 봉투 사용을
줄여주세요.



티켓 봉투
사용 중단



배리어프리 공연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 감동이네요!



배리어프리
공연 확대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에 참여하세요.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ON

국립극단
온라인 극장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극장

on.ntck.or.kr

N

일상에 연극을 더하다

